

문 의	특허심사3국 로봇자동화심사과	과 장 전일용 사무관 조은용	042-481-5474 042-481-8162
 2019년 5월 7일(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효자노릇 ‘톡톡’ , 돌봄로봇 특허 출원 증가세 노인 및 환자 식사보조, 건강관리, 재활지원 돕는 돌봄로봇

산책에서 돌아오면 로봇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르신을 번쩍 들어 조심스럽게 침대에 다시 눕힌다. 식사 시간에는 식판의 밥과 반찬을 집어서 드리고 시간에 맞춰 약 봉지를 가져다 놓는다. 우리나라는 '25년에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진입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돌봄 로봇을 사용하는 모습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돌봄 로봇 관련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돌봄 로봇 분야의 특허 출원은 '10~'12년에는 연평균 37건에 불과했으나 '13~'15년에는 연평균 50여 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은 연평균 72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과 접목한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해당 분야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부터 최근 9년간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대학·연구소(38%), 중소·중견기업(27%), 외국기업(17%), 개인(9%), 대기업(9%) 순으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 통계청 '19. 3월 연령별 현재/장래 인구추계 참조

- 이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돌봄 로봇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연구기관과 창업초기기업(start-up) 중심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10년부터 최근 9년간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식사·이송 보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40%), 혈당·혈압 관리와 같은 건강관리(27%), 재활 지원(10%) 등순으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는 돌봄 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 로봇을 4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돌봄, 의료, 물류, 착용형)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로봇 보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²⁾이다.

- 특허청도 국내기업의 특허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IP-R&D) 지원, 관련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 육성 지원에 나섰다. 또한 각종 로봇 경진대회의 후원 등을 통해 로봇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특허 창출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로봇 기술의 적용 범위가 고령자 돌봄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돌봄 로봇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반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하여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빠른 확보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3국
로봇자동화심사과 사무관 조은용(☎ 042-481-8162)으로 연락 바랍니다.

2) '18. 12. 10.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의결안건 제3호), '19. 3. 22.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산업부 보도자료) 참조